

광주시 5·18 40주년 행사 다양하게 치른다

서울시와 공동행사·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등...사업비 101억 '동학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민중항쟁 120년 역사 한눈에

광주시가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중항쟁 120년 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동학농민운동(1894년)부터 2016년 촛불혁명까지 대한민국 민중항쟁 12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가장 '동학에서 촛불혁명까지' (대한민국 민중항쟁 120년 전시)라는 전시회다. 내년 5월 중 1주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국외와 시비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투입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시민(민중) 투쟁을 통해 정착된 결과이며,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시민들이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인식 아래 저항의 기록이자,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선양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전시회는 동학농민운동, 3·1운동, 4·3 사건추모관, 4·19혁명관,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까지 8개 민중항쟁(또는 사건)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제주도의 비극 4·3 추모관의 경우 4·3을 기록한 사진 등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 영작가의 소설 순이삼촌, 제주도 화가 강요배의 그림 등 관련 콘텐츠로 전시관을 꾸린다. 5·18민주화운동관은 5·18 관련 자료에 더해 80년 5월의 상징과도 같은 '임을위 한행진곡', '소년이 온다(한강 소설)', '택시 운전사(영화)' 등 친숙한 콘텐츠를 입체 관람객과 만나게 된다. 다만 전시회 공식

명칭, 전시회 세부 내용 등은 행사 추진위원회가 꾸려진 이후인 연말 또는 연초에 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학에서 촛불혁명까지'라는 전시회 외에도 내년 5·18 4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 광주시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와의 공동 기념행사, 베니스 비엔날레 5·18 민주화운동 특별전, 5·18을 다룬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원작으로 한 연극 공연 등이다. 광주시는 내년 기념행사 기간 '5·18 광화문 문화제' 개최를 위해 다음 달 중순 서울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5·18 민주화운동 특별전을 열고, 통상 9~10월 열렸던 세계 인권 도시 포럼도 5월로 시기를 옮겨 확대할 계획이다. 5·18을 다룬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원작으로 풀란

드 스타리 국립극장이 제작한 연극 'The boy is coming'은 서울과 광주에서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내년 5·18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국비 77억원을 포함 모두 10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40주년 기념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언론인, 공무원 등이 포함된 TF(특별팀)도 꾸렸다. 한편, 5·18기념행사는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유족회) 등 5월 3단계와 5·18기념재단, 노동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주도로 치러졌다. 광주시는 매년 예산 지원과 간단한 기념행사 개최에 그쳤다. 이전과는 다른 광주시의 5·18 기념행사 준비를 두고 일각에서는 불만소리로 나온다. "지난 39년간 손 놓고 있다 왜 하필 4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만 전력을 쏟느냐"는 비판적 목소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역화폐로 지급 50만원씩 6개월간...지역경제 도움·청년취업 확대

전남도는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기 취업을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청년 구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전남에 거주하는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의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1, 2차에 걸쳐 총 849명을 선발해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청년의 개인 역량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힐링캠프, 리더십 캠프, 1대1 맞춤형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총 144명이 구직에 성공하고 구직자 가운데 106명이 전남지역 기업에 취업했다. 그러나 낮은 취업 성공률과 지원금의 전남지역 사용 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어 2020년 사업부터는 올해 운영 성과 및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도 자체사업으로 운영 하는 사업을 도와 시·군 매칭사업으로 변경해 시·군의 관심과 지역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원금 일부를 전남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원금의 전남지역 사용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구직 성공금을 전남지역 취업자에 한해 지급해 지역 기업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직자의 취업 연계를 위해 1대1 맞춤형 컨설팅, 현장자 멘토링, 취업 캠프 등 다양한 취업 역량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태휴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이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완하겠다"며 "또한 취업한 청년이 전남지역 기업에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장기근속장려금 등을 지원,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 내일 '국제 해양관광 크루즈' 심포지엄

전남문화관광재단은 29일 오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 해양관광 크루즈' 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 여수, 목포, 광양항 등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주제를 달리해 크루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4년간 크루즈 여행 콘텐츠 개발, 섬 관광 활성화, 유치 마케팅 방안 등 주제로 진행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국제행사로 개최한다. 대만, 독일, 홍콩 등 이미 크루즈산업 활성화가 원활히 이뤄지는 국가의 크루즈 관계자를 초청, 전남 크루즈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관광학회 중심의 '전남남도 크루즈 경쟁력 제고 방안' 주제의 연구

발표도 진행한다. 연구발표는 박종관 광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유재홍 아세아항공전문학교 교수, 이승현 G&B 컨설팅 회사 대표, 채동렬 경남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한다. 학술발표에 이어 황진희 해양수산개발원(KMI) 본부장을 좌장으로 신호식 국립목포해양대 교수, 안중수 호남대 교수, 안원태 호남미래포럼 박사 등이 '크루즈 연계 섬-해양 관광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후 김용은 전남문화관광재단 박사, 최상덕 전남대 교수, 이정철 남서울대 교수, 윤홍진 코스타선사 과장, 노창균 국립목포해양대 교수, 정오현 창원시정연구원 박사, 김재석 동명대 교수 등이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산업의 모든 것...DJ센터서 '2019 국제관광산업 전시회' 27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제관광산업 전시회'에서 관람객과 바이어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o.kr

올 3분기 출생아 7만명대... '역대 최소'

합계출산율 0.88명...작년 0.98명보다 떨어질 가능성 커

올해 3분기(7~9월) 출생아 수가 7만명대에 머물면서 3분기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새로 썼다.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추락했다.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도 작년 이어 2년 연속 1.0명을 밑돌 것 확실 시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379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3분기 기준 최소 기록이다. 가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8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08명 떨어졌다. 합계출산율도 3분기 기준으로 2008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96명, 0.89명으로 추락했다가 올해 1분기 1.01명으로 회복했으나 2분기 0.91명, 3분기 0.88명으로 내려앉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통상 4분기에 출산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합계출산율은 작년에 이어 또다



시 1.0명을 하회할뿐더러 작년(0.98명)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여성 가입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9월 출생아는 2만4123명으로 1년 전보다 1943명(7.5%)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42개월 연속으로 같은 달 대비 최저 기록을 경신 중이다. 3분기 사망자 수는 7만41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17명(0.4%) 감소했다. 3분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3380명으로 작년 3분기(9751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7년 3분기만 해도 자연증가분은 2만1925명이었다. /연합뉴스

담양 추월산에 케이블카 설치...내년 초 민자사업자 공모

담양군이 추월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내년 초 민자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27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담양호 관광지(추월산 지구)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자 최근 추월산 주변 지역인 용면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용면 주민들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담양군 관계자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국내에 설치된 케이블카를 벤치마킹한 뒤 내년 초 민자사업자를 공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군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추월산

인근 교통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주민 의견에 따라 도로와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케이블 길이는 추월산 제1주차장(하부 승강장)에서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까지 1.385km로, 이 구간에 상하부 승강장과 지주(높이 21.7m·31.4m) 2곳 등을 설치한다.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을 중심으로 추월산 정상~상부 승강장~보리암 1.31km 구간에는 모노레일을 운행한다. 사업비는 36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담양군은 케이블카가 운행되면 연간 방문객 100만명에 100억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광주일보

창사 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케이블카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광 266-1920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433-1503	우산 433-1503	
동구	남광 675-5530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앙 222-9054	충장 222-8171	
남구	남부 652-0175	백운 651-1833	봉선 675-5530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서구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풍암 603-0311
	화정 369-1625		
광산구	운남 952-1687	월곡 959-1920	침단 973-2900
	하남 955-0451	광산 944-0444	

[요양병원] 부지매매

힐링센터

- 품양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영암 월출산 부근 땅 703㎡ 전원생활적합 6600만원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물 등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9평 투자전망치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 전용생활 적합 1억7천
- 서구 마곡동 도로점 땅 378㎡ 투자에도 좋을 5억2천
- 함평군 소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무안 용탄면 영산강변 48900㎡ 펜션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9억
- 나주시 다시면 광곡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경)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건물 67㎡ 5억
- 전원주택 전용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랑 증용 1억3천

상가건물

- 농성동 상공화회소 뒤편 소방도점 상가주택 땅 156㎡ 건물 140㎡ 4억2천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입대 21억
- 계림동 아파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운암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6㎡ 매일 2억 청구 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유등 신축캐피탈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면적 은행 1억 매도 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빌 땅 318㎡ 건평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화순군 동면 사성재 무등산 밑 광곡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 원룸·내지 등과 교환할, 매도는 5억-7억임
- 구례군 구례면 서사천변(경)면 11050㎡ 다세대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음 6억4천
- 파산중인 주택 구매 계림동 소방도점 땅 142㎡ 2층집 164㎡ 집 좋음 1억6천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 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가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